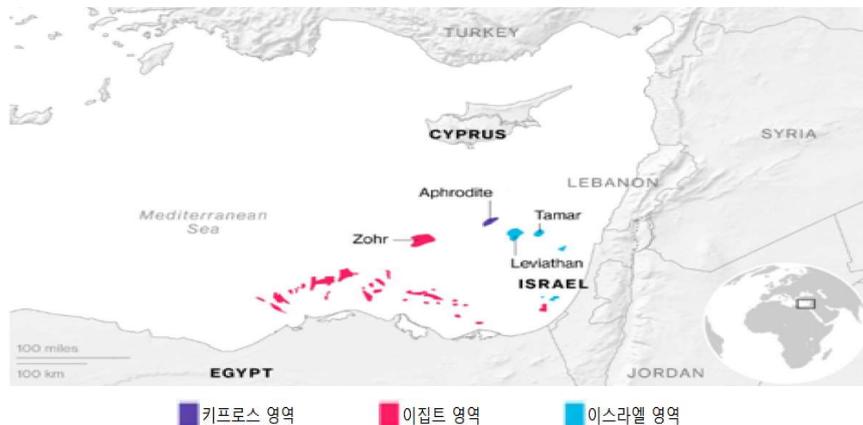




<p>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p> <p><a href="http://www.emerics.org/">http://www.emerics.org/</a></p> <p>2019. 04. 10.   아프리카·중동</p>	<p>「동향세미나」</p>
	<p><b>이집트, 천연가스 허브 조성 본격화</b></p> <p>작성   유광호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p>

- 이집트가 역내 가스기구 창설을 주도하는 등 천연가스 허브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최근 동지중해 7개국(그리스,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키프로스, 팔레스타인)을 회원으로 하는 역내 가스기구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 2019년 1월 15일 이집트 정부 주최로 개최된 East Med Gas Forum(EMGF)에서 동지중해권 국가들은 역내 천연가스 산업 동향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
- 천연가스 생산·판매에 대한 공동 체계의 필요성에 동감한 동지중해 7개국은 이 자리에서 가스기구 창설에 공식 합의하고 본부를 이집트 카이로에 두기로 결정
- 합의 2개월만인 지난 3월 6일에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
- 이 밖에도 이집트는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채수출을 목적으로 주변국과 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내 천연가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키프로스 아프로디테(Aphrodite) 가스전에서 이집트 이두쿠(Idku) 가스 액화시설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중반부터 이스라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타마르(Tamar) 가스전의 가스가 향후 10년간 이집트로 공급될 예정

그림 1. 동지중해 주요 가스전의 위치



자료: Oilprice.com

1) 2010년대 초중반 동지중해에서 잇따라 발견된 가스전이 최근 생산 개시를 앞두고 있으나, 해당 가스전을 보유한 국가들(이스라엘, 키프로스)은 자체적으로 수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변국을 활용한 적절한 수출 활로를 찾고 있음.

- 이집트는 여러 거대 시장과 가까운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아 허브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양 교역에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음.
  - 더불어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및 동부 아프리카에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이집트 천연가스 산업은 확인매장량 기준 지중해 최대 규모(30조 입방피트)인 조호르(Zohr) 가스전의 개발로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1억 명 규모의 내수 시장과 더불어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도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큼.
    - 이집트는 아프리카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주변국에 이를 수출해왔으나, 2011년 아랍의 봄 발생 이후 국내 정정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락
    - 그러나 엘시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와 2017년 말 조호르 가스전의 생산 개시 등으로 최근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1월 수출 재개
  
- 역내 국가들의 가스 자원이 이집트로 집결됨에 따라 이집트 천연가스 산업은 더욱 활기를 보일 전망이며, 관련 부문에서 우리나라와의 경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집트의 허브 조성 노력과 함께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지난 3월 28일 키프로스 에너지부와 엑손모빌(Exxon Mobile)은 키프로스 남서쪽 연안에서 최대 8조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
    - 영국 에너지 기업 BP(British Petroleum)는 지난 2년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이집트 가스전 개발에 더 많은 금액 투자
  - 이집트로부터의 가스 수입은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스 수입처를 찾는 국가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유럽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수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체 수입처 모색중<sup>2)3)</sup>
    - 중국은 실질적 수요처인 동부해안에 천연가스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최근 주변국으로부터의 PNG 수입을 줄이고 해상 경로를 통한 LNG 수입 확대
  - 이집트 천연가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LNG선박 건조 등의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가스공사는 오는 2019년 4월에 총 4척의 LNG선박 건조 프로젝트 발주 예정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 카타르와 호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2) 2016년 EU(European Union)는 러시아산 PNG에 대한 의존도 감축,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가스 저장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안보 패키지(Energy Security Package)' 발표함.

3) 동지중해에서 발견된 가스전의 규모(확인매장량 기준, 74조 입방피트)는 EU 전체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2017년 기준, 14조 입방피트)의 약 5배에 달함.

-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의 34.1%(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와의 장기 도입계약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 **EMERiCs**

표 1. 한국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별 수입액(2018)

순위	국가	수입액(천 달러)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1	카타르	7,917,267	34.1
2	호주	4,249,941	18.3
3	오만	2,506,323	10.8
4	미국	2,249,268	9.7
5	말레이시아	1,757,276	7.6
6	인도네시아	1,498,230	6.5
7	러시아	968,773	4.2
8	페루	498,123	2.1
9	브루나이	350,603	1.5
10	나이지리아	232,235	1.0

자료: KITA, K-stat.